



남원시, 자활상품 순회 장터 열어

남원시는 지난 30일, 시청 로비에서 자활상품 시군 순회 장터를 열고 도내 지역자활센터에서 생산된 다양한 상품을 선보였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광역자활센터 주관으로 열린 자활상품 순회 장터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착한소비를 촉진하고 저소득층의 자립과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 도내 시군을 순회하며 지역자활센터에서 생산된 각종 상품을 홍보·전시·판매하는 행사이다.

이번 순회 장터는 남원, 전주, 군산, 김제시의 6개 지역자활센터서 참여 △베이글 △커피 △음료 △김밥 △수제 누룽지 △김부각 △샌드위치 △천연제품(비누) 등 다양한 상품들을 저렴한 가격에 선보여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남원시 자활사업단에서는 △달구연베이글 △메이커리카페(베이글&커피) △베트남골목식당(쌀국수) △싸다김밥 △매머드카페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교통산 국민관광지에 신규 자활근로 사업장인 파스쿠지 카페와 3분마트를 개점하여 안정적인 일자리와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시 1388청소년지원단 30여명 위촉 출범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위기에 놓인 청소년을 지역사회가 함께 지켜내기 위해 1388청소년지원단 30여명을 새로 위촉하고, 앞으로 2년간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위촉으로 청소년 복지 향상에 힘을 보탬 예정이다. 신규 위촉된 단원들은 청소년 관련 전문가와 활동가로,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살려 위기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1388청소년지원단은 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과 보호, 지원 연계를 돕는 핵심 역할을 맡는다. 공식 활동 시작을 알리는 첫 모임은 지난 28일 오전 10시에 신규 위촉,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남원 풍년제과 하정동 커피, 죽향동에 빵 기부

남원시 죽향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임정숙)는 지난 30일, 풍년제과 하정동커피(사장 이기연)에서 개별 포장된 빵 360개를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빵은 관내 경로당 3개소 및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배부되어, 바쁜 일상에서 이웃과의 정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하정동커피는 매주 취약계층을 위한 빵 나눔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매달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카페 체험 행사를 운영하고 있다.

이기연 사장은 "앞으로도 꾸준한 나눔 활동으로 지역에 보탬이 되고 싶다"고 전했으며, 임정숙 죽향동장은 "풍년제과 하정동커피의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아영면 새마을부녀회, 김 26박스 전달

남원시 아영면 새마을부녀회는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해 김 26박스를 전달했다.

부녀회는 매년 김장간지, 고추장, 김 기부 등을 통해 나눔과 봉사의 모범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지속적인 나눔 정신은 지역사회의 화합과 온정을 더욱 끌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기부된 김은 1일가구 소풍행정을 통해 아영면 맞춤형복지팀과 아영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명절 인사와 함께 전달할 예정이다.

김영임 새마을부녀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꼭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되어 행복하고 따뜻한 추석명절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도랑이 살아야 강이 산다’

강살리기진안군네트워크, 홍삼축제 기간에 강살리기 홍보 나서

사강살리기진안군네트워크팀장 김민아는 지난 28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열린 진안홍삼축제에서 ‘도랑이 살아야 강이 산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진안군민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온 관광객들에게 홍삼 DM천연바누를 무료로 나누어 주며 물의 중요성과 환경의 필요성을 알리는 데 구슬땀을 흘렸다.

강살리기네트워크는 이번 홍삼축제에 참여한 많은 관광객(1,000명)을 대상으로 홍보를 펼쳤으며, ‘강과 하천 살리기 운동’을 10년 넘게 진행해 온 환경 단체이다.

또한 학생들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인식변화를 이끄는 환경교육, 정기적인 수변 공간 정화활동, 하천 수질감시 및 주변 환경 정비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김민아 팀장은 “깨끗한 환경과 소중한 자연은 미래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며 “불법쓰레기, 분리배출 등 모두가 함께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팀장은 “특히 진안군은 전북특별자치도와 충남 도민들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용담댐이 위치한 곳이기 때문에 ‘도랑살리기’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부했다

김 팀장은 “특히 진안군은 전북특별자치도와 충남 도민들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용담댐이 위치한 곳이기 때문에 ‘도랑살리기’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대한노인회 진안군지회, 제29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지난 30일 진안 문예체육회관에서 (사)대한노인회 진안군지회(회장 구동수) 주관으로 ‘제29회 노인의 날’ 기념식이 개최됐다. 이번 행사에는 전춘성 진안군수, 동창욱 진안군의회 의장, 구동수 진안군 노인회장 등 내빈과 관내 어르신들을 포함해 약 8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식전공연, 기념식, 표창 수여, 기념사·축사, 오찬 순으로 진행됐으며, 지역사회와 가정을 위해 헌신한 어르신들의 공로를 기리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모범어르신 12명이 진안군수 표창을 장한 어르신 11명이 대한노인회 진안군지회장상을 수상했다.

모범어르신 표창 수상자는 △진안읍 서귀동(77), 박영순(80) 씨를 비롯해 △용담면 김부원(52), 안천면 정형준(84), 동향면 성장경(66), 상전면 원명해(78), 백운면 전상길(85), 성수면 이삼만(78), 마령면 전종삼(84), 부귀면 정영희(68), 정전면 고택호(89), 주천면 황양일(83) 등 각 읍·면을 대표한 어르신들이다.

장한어르신 표창 수상자는 △진안읍 최영식(69), 용담면 정대중(84), 안천면 이철희(83), 동향면 이금복(70), 상전면



추병선(77), 백운면 여용만(79), 성수면 이장재(76), 마령면 양정석(93), 부귀면 장시균(89), 정전면 손훈일(76), 주천면 백재봉(83) 등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축사를 통해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삶의 노력과 지혜를 함께 나누고 감사함을 전하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김제시립도서관 제7회 북적북적 책 놀이 축제 성료

김제시립도서관(시장 정성주)은 ‘도서관에서의 한페이지, 읽과 만남을 담다’라는 슬로건으로 제7회 북적북적 책 놀이 축제가 2,00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제즈밴드 ‘어그렘’의 을 공연을 시작으로 루비토양상들의 학생들의 현악연주, 무대를 빌려드립니다. 코너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가을날의 햇살처럼 따뜻한 즐거움을 선사하며 문을 열었다.

새만금 길게 독서 감상문 공모전에 최우수 수상자인 ‘궁연단 씨 등 참석자 6명의 시상식에 이어 춤과 노래, 연주 등 각자의 끼를 발산할 수 있는 무대공연이 11시 부터 오후 3시까지 지속 운영됐다.

특히 도서관의 정체성을 부각하는 초등 독서골든벨은 관내 어린이들이 지식을 겨루는 즐거운 퀴즈대회로 큰 호응을 얻었다. ‘궁부리 독서법’의 최승필 작가와의 북콘서트는 저자와 직접 만나는 뜻깊은 시간을 마련해 관심과 열기를 더했다. 또한 지역작가 작품 전시회와 ‘모두 다 같이 그



남원 동충동 지사협 등, 추석맞이 행사 진행

남원시 동충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9일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우리마을돌봄단’과 청년비무가 협력해 관내 사회적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추석맞이 추석을 전례요 행사로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혼자 지내는 중장년 1인 가구가 이웃과 어울리며 명절의 따뜻함을 느끼고, 지역사회 속에서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로, 1일 1가구 소풍 행정을 통해 발굴하고 꾸준히 교류해 온 중장년 1인 가구를 초대해 부침개를 부치며 이웃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 참여한 주민은 “명절이 항상 외로웠는데, 함께 음식을 만들고 나누니 마음이 따뜻해졌다”고 말했다.

조태봉 협의체 위원장은 “앞으로도 우리마을돌봄단을 통해 연중 위기가구를 살피고, 민관이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림책 작가 그림책 전시는 지역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

도서관 내부에서는 ‘이빠 캠프기요’, ‘실감 동화나라 공룡 대탈출’, ‘백두대간 (조선으로 가요)’ 등 체험 공간을 마련되었으며, 도서관 앞마당과 실내에서는 창의력을 자극하는 다양한 체험 부스가 운영됐다.

/김제=곽노태 기자



무주교육지원청, 추석 사회복지시설 격려 방문

전북특별자치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강)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지난 30일 관내 사회복지시설인 평화요양원(노인요양시설), 하은의 집(장애인 거주시설)을 각 각 방문했다.

이강 교육장과 직원들은 방문 기관에서 요청한 물품을 전달한 후에 시설의 운영 상황과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시설 원장 등을 포함한 구성원들과 인사하며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강 교육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을 이어가며, 시설에 계신 모든 분들이 행복한 명절을 맞이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북특별자치도무주교육지원청은 매년 명절에 우리 사회의 따뜻한 나눔문화를 확산하고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무주=전문선 기자



여성새일센터, 경력단절예방 슬로건 공모전 시상식

전북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전정희 회장)는 지난날 30일 ‘경력단절예방 슬로건 공모전’ 시상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경력단절을 넘어선 나의 새로운 시작 △경력단절 극복 사례 확산 △일·가정 양립 실천 문화 조성을 주제로 8월 19일부터 9월 18일까지 진행, 총 57개 팀이 참여했다. 응모작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5편의 작품을 선정, 최우수상(1명, 30만원), 우수상(1명, 20만원), 장려상(3명, 각10만원)에 대한 상장과 상금을 수여했다.

“오늘 잊는 나의 일 내일 여는 나의 힘”이라는 주제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백소연씨는 “오늘 내가 꾸준히 이어가는 작은 노력과 일상이 결국 더 큰 힘이 돼 내일을 밝히는 원동력이 된다고 믿는다”고 소감을 밝혔다.

/주은성 기자



농협 남원시지부, 지역 축산물 소비촉진 캠페인

농협 남원시지부(지부장 오영석)는 지난 29일 농심천심운동의 일환으로 지역 축산물 소비촉진 캠페인을 남원축협 참여우명품관에서 펼쳤다.

농심천심운동은 농부의 마음이 곧 하늘의 뜻이라는 의미로, 농업·농촌의 가치를 국민과 공유하고 상생을 통해 건강한 먹거리를 지속 가능한 농업을 지켜나가는 범농협 차원의 캠페인으로, 이번 행사는 지역 축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고, 축산물 소비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마련됐다.

/남원=김기두 기자



농협 고창군지부 등, 농축산물 소비촉진 나눔

NH농협 고창군지부(지부장 이미정)와 고창부안축협(조합장 오교윤)은 지난 30일 고창이동양육시설인 ‘고창행복원’을 방문해 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을 전달했다.

이번 나눔은 이동 복지증진과 우리 지역 농축산물(쌀, 소고기) 소비촉진을 위해 전달했으며,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구현을 위한 새로운 농업농촌 국민운동인 ‘농심천심(農心天心)운동’의 일환으로 전개했다.

이미정 지부장은 “임직원들의 정성을 담아 지역 이웃에게 도움이 되고자 나눔 물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무주군가족센터, ‘전 부치GO, 정 불이GO’ 성료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무주군가족센터(센터장 정성철)가 최근, 무주상생반디술 요리교실에서 ‘전 부치GO, 정 불이GO’ 봉사활동을 성황리에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가족나눔봉사단과 소통해YOU홍보단이 협업하여 추석 명절을 맞아 전을 직접 조리하고, 선정 회의를 통한 지역 내 10가정에게 음식을 배분하며 따뜻한 정을 나누는 뜻깊은 봉사활동이 이어졌다.

‘전 부치GO 정 불이GO’는 단순한 조리 체험을 넘어, 지역 주민 간의 교류를 확대하고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 문화를 확산하는 데 의의를 두었으며 또한, 참여자들의 봉사자로서의 성취감을 느끼고 나눔의 가치를 몸소 실천하는 시간을 가졌다.

/무주=전문선 기자